

“아프니까 투수다”…KIA 김병현, 선발로 계속 뛴다



선 감독 “선발 로테이션 변화없어”

박준표·임준섭, 경험 쌓으며 상승세

맞으면서 크는 투수들이다.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는 KIA의 마운드 고민. 초반에는 불펜 고민이 두드러졌지만 송은범의 부상이 발생하면서 선발 고민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뽀족한 수가 없는 KIA의 선택은 일단 ‘고’. 예외주사였던 서재응이 제 구위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재응은 17일 SK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4개의 피홈런을 기록하는 등 6이닝 7실점으로 부진했다.

결국 임준섭으로 출발한 이번 주에도 김진우-양현종-홀튼-김병현이 마운드에 출격한다.

선동열 감독은 지난 주 김병현을 선발로 테스트 했다. ‘절반의 성공’이었다. 첫 선발이었던 10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3회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2.2이닝 7실점(6자책)에 그쳤다. 두 번째 선발 기회이자 마지

막이 될지도 몰랐던 지난 15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4이닝을 3실점으로 버티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양현종과 홀튼까지 무너지면서 2연패에 빠졌던 상황. 이날 김병현은 오심 논란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2회 3점을 내주는 했지만 3·4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며 분전했다. 일방적인 열세가 예상됐던 마운드 싸움에서 김병현이 힘을 보태주면서 KIA는 8-4 승리를 거뒀다.

선 감독은 다시 김병현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역할도 주문했다.

선 감독은 “뽀족한 수도 없고 (로테이션을) 그대로 갈 계획이다. 다음 등판 때는 김병현에게 100개 정도의 투구수를 맡길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그나마 어린 투수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반갑다. 역시 경험이 최고의 자산이다. 앞선 두 차례 선발의 조기 강판

상황에서 등판했던 박준표도 상승세다.

박준표는 양현종이 1.2이닝 만에 강판됐던 지난 15일 롯데전에 이어 17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출격했다. 롯데전에서 4.1이닝 1피안타 2사사구의 호투를 했던 박준표는 17일 강정호에게 만루포를 맞기는 했지만 씩씩하게 마운드를 지켰다. 포수 차일목이 홈 송구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도 있던 분위기였다.

선 감독의 눈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초반보다는 한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박준표는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다. 원래 피해가는 승부를 하는 편은 아니다. 더 좋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준섭도 맞으면서 크는 선수다.

임준섭은 “17일 볼넷 두 개로 5회를 넘지 못해서 아쉬웠다. 서건창과의 승부는 내 실수다. 이택근과의 승부에서는 너무 어렵게 가려다가 볼넷을 내줬다. 앞선 대결만 생각하다가 윤석민에게 쉽게 홈런을 허용했다. 다음에는 더 침착하게 승부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병현>

덕아웃 말·말·말 자전거 타는 필 “함평은 너무 멀어요”

▲“검사기사 친구들이니까.”

신중길이 친구 따라 감독실에 갔다. 덕아웃에서 취재진과 얘기를 하던 선동열 감독의 눈길이 그라운드로 향했다. 훈련을 끝낸 이대형과 신중길이 조금 거리를 두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는 걸, 선 감독은 “내 방으로 좀 와봐라”고 외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두 선수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다. “누구를 부르신 거냐?”고 고개를 가웃거리던 두 사람은 고민 끝에 함께 감독실 문을 두드렸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 다시 모습을 드러낸 세 사람. 알고 보니 선 감독이 찾은 선수는 이대형이었다. 신중길까지 따라 들어온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 감독은 “뭘 겁

사기사. 둘이 친구니까”라고 웃었다. 그리고 “최근 이대형이 부진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니 일찍 나와서 배트도 치고 타격감도 찾아보라고 했다”며 이대형의 면담 요청을 밝혔다. 친구 따라 감독실에 다녀온 신중길의 반응은 “화이팅 하자고 하시던데요.”

▲“노 바이크 (No bike)”

손등 미세 골절로 엔트리가 말소된 외국인 선수 필이 1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재활 훈련을 했다. 퓨처스리그 홈 6연전이 있었던 지난 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했던 필은 2군 선수단이 원정길에 나서면서 광주에 머물렀다. 근황을 얘기하던 필, 평소 함평에는 어떻게 가느냐는 질문을 받

자 “노 바이크!”라고 대답을 하며 덕아웃에 웃음을 선사했다. 필은 지난 봄 자전거를 타고 집과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면서 ‘자전거 타는 필’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필은 “함평은 멀다. 트레이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한다”며 “타버로 경기를 보는 게 지루하다. 아직 방망이는 쥐면 통증이 있지만 다음 주 정도면 훈련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필은 “아침에 축구를 봤다.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어서 나도 조금 봤다. 새벽 4시에 야구장에서 응원전을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웃으며 덕아웃을 떠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여수서 롤러스케이트 국가대표 선발전

오늘부터 3일간 주니어·시니어

아시아·세계선수권 대회 출전

올 하반기 롤러스케이트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가 오는 19일부터 3일간 전남 여수에서 열린다.

대한롤러경기연맹은 오는 19~21일 여수 전남롤러경기장에서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해 총 24명의 주니어 및 시니어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니어 국가대표 남녀 8명은 오는 9월 중국 하이닝에서 열리는 제16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트선수권대회와 11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열리는 2014 세계롤러스케이트선수권대회에 모두 출전한다.

남녀 16명을 뽑는 주니어 분야에서는 되도록 많은 선수에게 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녀 단거리·장거리 1·2위는 2014 세계롤러스케이트선수권

에, 3·4위는 제16회 아시아롤러스케이트 선수권에 파견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시니어 여자 단거리 부문에 출전하는 T300m중목 한국신기록 보유자 안이슬(충북 청주시청)과 다양한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금메달을 획득한 경험이 있는 신소영(대구광역시체육회)이 있다. 시니어 여자 장거리 부문에서는 서소희(경남도청), 이슬(경북 안동시청), 장수지(경남도청), 우효숙(충북 청주시청)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우효숙은 2012년부터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빙상을 병행하느라 롤러 훈련을 거의 못했지만 최근 열린 2014 코리아오픈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시니어 남자 단거리는 이명규(경북 안동시청), 장수철(경남도청), 엄한준(충남 논산시청)이, 장거리는 최광호·이상철(대구광역시체육회), 이훈희(전라북도체육회), 손근성(경남도청), 광기동(경북 안동시청) 등의 경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팬은 내 가슴에’

유니폼 등번호에 팬 얼굴 인쇄

전남 드래곤즈가 후반기에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뛴다.

전남은 얼마 전 ‘선수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벼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팬들의 사진을 접수해 선수 유니폼 등번호에 넣는 것으로, 선수와 팬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그라운드를 누비자는 의미였다.

이번 이벤트에는 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외 1885명의 팬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새로 제작되는 유니폼을 오는 7월5일 FC 서울과의 홈경기를 통해 팬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다.

특별한 유니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공동구매도 이뤄진다. 공동 구매 접수기간은 6월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 드래곤즈 홈페이지(www.dragons.c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힘찬 리턴샷

벨라루스의 빅토리아 아자렌카가 18일 영국에서 열린 에이코 오픈 카밀라 조르지(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리턴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18일 까지

소파 식탁 보신 판매

쓰시던 소파 식탁을 최대 **200만원** 까지 (타사상품 포함)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홍스페이스** ☎ 1899-0240